“주석사찰에서 다비의식을”
연화회 ‘사찰 다비’ 생전접수
상담문의 010-4727-6065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1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1일(음력 11월 13일) 목요일 / 불기 2570년



다시, 정법의 첫걸음

2026년 병오년 새 아침, 붉은 말의 역동적인 기운을 안고 첫걸음을 내디딥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 해도 불교의 지혜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쉼 없는 정진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글=여수령 기자 · 그림=박혜원 작가

불교도 사회도 ‘선거의 해’

조계종, ‘최고 신성’ 종정 추대
본사 주지·종회의원 선거 예정
9월 3일 총무원장 선거 ‘관심↑’
불자 정치인 ‘지선’ 출마 잇달아
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장 도전
주호영 의원, 대구시장 출마 계획

신중일 · 김내영 기자

올해 불교계와 한국사회는 각종 선거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조계종은 종단 최고 어른인 종정 추대를 비롯해 종단 대표자를 선출하는 총무원장 선거와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교구본사주지 선거를 치른다. 사회적으로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려 불자 정치인들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올해 조계종 선거는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선거로 시작된다. 현 주지 덕조 스님의 임기가 2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새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1월 16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열린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1월 4~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겸직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직 소임을 맡고 있을 경우 1월 3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한다. 교계 안팎에서는 중앙종회의원 성로 스님과 전 은해사 주지 덕관 스님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9월 예정된 제38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다.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7일 만료로, 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인 9월 3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총무원장 후보는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 가운데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역임 △교구본사 주지 4년 이상 재직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3년 이상 재직 △중앙종회의원 6년 이상 재직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 3년 이상 역임 중 하나라도 자격을 갖춰야 한다.

총무원장 선거인단은 총 321명으로 구성된다. 24개 교구본사에서 각 10명씩 선출한 교구 선거인단 240명과 중앙종회의원 81명이 참여한다. 선출된 총무원장은 원로회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도 새 얼굴을 뽑는다.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5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임기가 11월 8일에 만료되는 가운데, 만료일 30일 전 돌아오는 첫 번째 목요일에 선거가 시행된다.

직선직 의원 51명은 전국 24개 교구본사에서 선출되며, 직능대표 20명과 비구니 대표 의원 10명은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된다. 중앙종회의원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 승려로, 임기는 4년이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후보는 전국비구니회가 교육·수행, 포교, 복지, 행정, 사회·문화분야로 나눠 선출한다. 분야별 단독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되며 2인 이상이 입후보한 분야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12월 경에는 종단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진 조계종 종정 스님을 추대한다.

〈A2면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신년특집호
A·B·C 섹션 80면 발행

데스크 초대석 A7
기후 스님(시드니 정법사 회주)



B is Hip
B1 · 3 · 4 · 5 · 8 · 9 · 12 · 13



현대불교·조계종 미래본부 공동기획
선명상으로 새해를 열다
C1 · 2 · 3 · 6 · 7 · 10 · 11



신년법어·신년사
A13 · 14 · 16 · 17 · 18 · 19
신년수상 무비 스님 A30
화엄만다라 B23
보명 스님(경주 보광사 주지)